



# 2023 KUSF 대학농구 U-리그 개막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여정 시작

2023 KUSF 대학농구 U-리그가 지난 달 13일에 개막했다. 우리대학 농구부는 지난해 중위권인 7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자아냈다.

올 해는 슈터이자 주장이었던 백지웅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19)이 프로로 진출하면서 전력 손실이 생겼지만, 신장이 큰 신입생들을 영입해 건국대 농구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. 우리대학 농구부는 △연세대 △성균관대 △동국대가 속한 '죽음의 조'인 C조로 배정받아 치열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.

지난 15일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94-67로 승리를 내뿜던 우리대학 농구부는 20일 2경기 만에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72-71로 첫 승리를 가져왔다.

우리대학 농구부 주장 박상우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0)가 경기 종료 8.3초

전 레이업\*을 성공시켜 재역전으로 쟁취한 극적인 승리다. 24일 홈에서 맞붙은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87-84로 아쉽게 2연승을 놓쳤다.

\*레이업: 농구에서, 골 가까이에서 뛰어올라 손바닥에 공을 올려 가볍게 던져 넣는 슛.

다치는 선수 없이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\*\*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대학 농구부에서 최근 만화영화 '슬램덩크'의 주인공인 강백호를 떠올리게 하는 '현실판 강백호' 최승빈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0)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이에 우리대학 농구부 최승빈을 만나 2023 KUSF 대학농구 U-리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.

\*\*플레이오프: 정규 리그를 마친 뒤 승률이 같은 경우 벌이는 순위 결정전 또는 정규 리그를 끝낸 다음 최종적인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별도로 치르는 경기.

**Q1. 건국대학교 농구부만의 강점이나 특색이 있을까요?**  
선수들 각자 개성이 강하고 장·단점이 확실하기에 저희 선수들끼리 뭉치면 어떤 강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.

**Q2.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?**  
프레디 선수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2)와의 하이\*\*\*로우\*\*\*\* 포스트를 가장 신경 써서 연습했습니다. 조환희 선수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1)와의 픽앤롤\*\*\*\*\*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. 박상우 선수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0)와 김도연 선수(의생대·스포츠건강학과·21)의 분발이 이번 시즌 우리대학 농구부의 성적에 크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.

\*\*\*하이: 농구 경기장에서, 자유투 라인 근처 지역.  
\*\*\*\*로우: 농구 경기장에서, 골대와 가까운 지역.  
\*\*\*\*\*픽앤롤: 농구에서, 골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센터가 가드의 패스를 받아 슛하는 일.

**Q3.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**  
갑자기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부담감에 제 실력의 50%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고 결국 연장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. 다음 경기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**Q4. 건국대 강백호로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,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?**  
제주도 훈련에서 코치님과 상의할 때 코치님께서 “승빈이의 의도는 너무 좋다. 플레이 스타일과 평소 성격도 강백호와 비슷하기에 찬성한다. 다만 강백호라는 존재가 승빈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존재감이기에 추후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



[출처: @twinkle\_basket]

다. 그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겠냐”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“즐거웠습니다”라고 답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부담감 탓에 중요한 경기에서 패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했지만, 주위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**Q5. 마지막으로 건국대 농구부를 응원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.**  
항상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강백호 때문에 더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우리 건국대 농구부 선수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관중석에서 환호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더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더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

2023 경기일정				
경기일정	상대팀	홈/원정	장소	시간
<b>KUSF 대학농구 U-리그</b>				
03.15	연세대	원정	서울	17:00
03.20	동국대	원정	서울	17:00
03.24	성균관대	홈	충주	17:00
03.30	연세대	홈	충주	17:00
04.05	성균관대	원정	수원	17:00
04.10	동국대	홈	충주	17:00
04.28	조선대	홈	충주	17:00
05.04	상명대	홈	충주	14:00
05.08	중앙대	원정	안성	17:00
05.26	단국대	원정	천안	17:00
05.30	명지대	홈	충주	17:00
06.07	한양대	홈	충주	17:00
06.15	고려대	원정	서울	17:00
06.28	경희대	원정	수원	17:00

/전현정 기자 jhj040527@naver.com  
/정민재 수습기자 ehclrabbit01@naver.com

## 우리캠퍼스 학우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

우리캠퍼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, 취업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를 위해 힘쓰고 있다.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건대학보사와 함께 알아보자.

취업지원센터는 재학생이 올바른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과적인 취업계획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한다.  
먼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△졸업생 취업 멘토링 △단과대학별 산업직무스쿨 △M.V.P 사업(전공연계 직무역량 강화사업) △해외취업 예비인력 양성 과정 △취업캠프 및 실무자 특강 △산업전문가 및 현직자 멘토링데이 △6시그마 프로젝트 △빅데이터 실무능력 활용과정(코딩) △잡플래닛 면접 후기 서비스 제공 △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△ONLINE 취업솔루션 △AI모의면접 솔루션이 있다.  
이 모든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. △잡플래닛 면접 후기 서비스 제공 △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△ONLINE 취업솔루션 △AI모의면접 솔루션 △M.V.P사업(전공연계 직무역량 강화사업)은 지난 달부터 12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다.

6시그마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실무능력 활용과정(코딩)은 하계방학에 이용할 수 있고, 취업캠프 및 실무자 특강은 이달과 하계방학에 참여할 수 있다. 졸업생 취업 멘토링은 이번 학기 지원이 마감돼 다음 학기에 참여 가능하고, 단과대학별 산업직무스쿨은 이달과 9월에 참여 가능하다.  
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KU Pre-엘리트 프로그램과 KU해외인턴십이 있다. KU Pre-엘리트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도와주고, 우수사례로 남기는 프로그램이다. KU해외인턴십은 K-MOVE의 사전 교육단계로,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.  
4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KU-엘리트 프로그램과 K-MOVE 스쿨 미국취업과정이다. 앞서 언급된 KU Pre-엘리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KU-엘리트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한다.

또 K-MOVE 스쿨 미국취업과정은 직무 및 어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국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KU-엘리트 프로그램과 KU Pre-엘리트 프로그램은 지난 달에 신청이 마감돼 8월에 참여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 4학년 대상 프로그램인 K-MOVE 스쿨 미국취업과정도 올해는 지원이 마감돼 2024년에 참여할 수 있다.  
취업지원센터에서는 앞서 언급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 또한 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.  
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취업지원센터 (☎043)840-3931~3935)와 취업상담실 (☎043)840-3091~3094)로 문의 바란다.  
/하지수 기자 gw5011@naver.com  
/김규림 수습기자 alicel470@naver.com